

작품 내용

제 목	어떤 온도의 도굴
내 용	누군가 버려낸 밤의 모서리를 값없이 쥐어 가려는 손길이 있다 빛을 쫓지 못한 뿌리의 통증은 지워진 채 열매의 단맛만 훔쳐 가는 가벼운 걸음들 모니터 너머에서 피어난 문장들은 활자가 아니라 살점이다 밤을 지새우며 제 안의 어둠을 짜내어 겨우 길어 올린 한 바가지의 새벽이다 허락 없이 가로챈 타인의 정원은 결코 제 계절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름을 잃어버린 향기는 그리움 없이 허공으로 흩어질 뿐 타오르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그 불빛 아래 머물렀던 이의 예의 네가 알아누우며 피워낸 그늘을 나 또한 가만히 아끼고 호명하리니 그 고독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지키는 가장 다정한 파수꾼이 된다